



“하루라도 ‘부처 짓’ 해야 불자”

성수 스님 (현대선원 조실)

용추계곡으로 유명한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해발 1천1백93미터의 황석산 자락 황대마을에 터를 잡은 현대선원은 문턱이 낮은, 아니 문턱이 아예 없는 절이다. 입주문이 따로 없고 법당과 선방, 요사채 등 9개의 건물이 동네 집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절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 세간과 출세간이란 이분법이 이 도량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의미다. 30세 이후, 늘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새 땅에서 새로운 인재를 키우겠다고 발원한 성수 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명예원로의원의 원력이 깃든 수행처라 그려놓기도 모른다.

선원 후원으로 난 길을 따라 작은 개울의 물다리를 건너 자리 잡은 성수 스님의 토굴과 조실채는 지난 해 새로 지은 건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침 뒷밭에서 율려하는 신도들에게 이런 저런 지시를 하고 있던 스님께 인사를 드리자, 반갑게 조실채로 안내하신다.

서울 법수선원 등에서 빈 후, 석 달 만에 찾아뵙는

스님의 건강은 85세의 고령임에도 여전이 정정하다. 인터뷰 내내 수십 년 전의 일을 숫자까지 세세히 기억하며 말씀하시는 모습에는 허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애독자들에게 전할 법문을 청하자, 곧 작지만 큰 법석이 펼쳐진다.

“부처님오신날만이라도 ‘부처 아들’인 불자(佛子)로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서 부처가 됐는지를 잊지 말고 생각해 봐야 해. 부처님은 500생 동안 몸을 받아 살면서 헛말, 헛짓, 헛걸음 안한 공덕으로 부처가 되었어. (복덕이 아닌) 공덕이 쌓여서 마지막으로 부처가 된 거지. 그런데 부처님 행동은 흉내를 내지 않고 입으로만 부처요, 마음으로만 부처라고 하면 불자는커녕 사람도 안 돼. 사람 되고 부처가 되는 거잖아. 이 날 만이라도 부처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예비와 같은 짓을 해야 해. 하루라도 ‘부처 짓(佛行)’을 해야 불자 아니겠어.”

성수 스님은 40년 전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문을 할 때, 파격적인 설법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신타르타 태자는 네 가지 큰 죄를 지은 놈이니까,



하지만 그는 3000년 동안이나 존경받고 있다. 자기 밥 먹고도 육먹는 자식 되지 말고, 신타르타 태자의 재주가 뭔지 물어보고 배워서 알고 믿어라.”

이 법문에 스님과 신도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깊은 뜻을 알아듣고는 모두 기뻐했다고 한다.

스님은 신타르타 태자에게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네 가지 큰 죄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국사를 돌보지 않고 출가했으니 부왕의 대를 잇지 않은 죄요, 둘째는 부모의 뜻을 거역했으니 천추만대(千秋萬代)의 불효죄요, 셋째는 젊은 부인을 버린 배신죄(背信罪)요, 넷째는 라홀라를 낳고도 기르지 않고 자식을 버린 죄라는 것이다. 이런 중죄인이 3000년 동안이나 세상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까닭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신타르타 태자는 사문유관(四門遊觀)을 계기로 ‘사람은 왜 저렇게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어야 하나?’ 하고 깊이 느끼고, 안 죽는 법을 알기 위해서 6년이나 찾아 다녔다. 몸은 곱질하고 뼈만 남아서 옆에 있는 밥도 먹을 사이 없이 구상하고 연구했으나 세월은 다 가버리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우루벨라 촌장 딸 ‘수자타’가 유미죽(乳糜粥)을 우유로 만든 죽을 한 그릇 갖다 줘서 먹고 나니까, 피와 살이 되어서 정신이 드는 것이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니까 죄를 짓고 나와서 인도 땅 밟을 자격도 없고 인도 땅의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산천초목까지도 ‘네 가지 죄 지은 신타르타 태자 놈아!’ 하고 전부 욕을 하는데,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은산철벽(銀山鐵壁)에 부딪쳐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통곡하다가

사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는 그 정신은 아만도 아니요, 도도한 야상(我相)도 아니요, 오직 이 밝은 빛이며, 참 자아의 발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밝은 빛은 성인의 것도 아니고, 중생의 것도 아니고, 우주 법계에 항상 존재하고 있으나, 그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신타르타 태자만이 먼저 발견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저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부처요, 조사임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다. 각자가 ‘불래부처’임을 자각하고 부처행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격식 밖(格外)’의 도리를 담고 있는 법문이다. ‘유아독존’의 깊은 도리를 체득해 그 자유자재한 뜻을 맞보게 되면 비로소 ‘신 불자’가 된다는 가르침이다.

부처님 오신 참뜻을 이렇게 설파하는 성수 스님은 누구보다도 부처님오신날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초파일, 석탄절, 불탄절 등으로 불리던 부처님 탄신일을 순 우리말인 ‘부처님오신날’로 통일해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스님은 무려 40년 전의 일을 오늘의 일처럼 눈앞에서 보듯 생생하게 말씀하신다.

1967년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고 조계사 주지소임을 불 때의 이야기다. 당시만 해도 쫓겨간 성수 스님은 평소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뛰어넘어 활발한 포교사업을 펼쳐 불교계를 놀라게 했다. 아직 가난한 시절, 스님은 조계사 주지에 취임한 지 3일 만에 서울 시장을 만나겠다고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장이 바쁘다보니, 그날 저녁 7시에야 만나게 됐다.

9살 연상이었던 김현옥 시장은 초면에 스님에게 거침없이 말했다.

“왜 찾아오셨소?”

“조계사 신도회장 좀 맡아주시요.”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경상도 무지렁이가 서울 와서 일 좀 하게 해주시오.”

“그럼 뭘 도와드려야 하나요?” “구경장 17명이 신도회 부회장으로 들어와야 일 좀 할 것 아니요.”

“그건 맞소.”

이튿날 서울 시장과 구경장들이 조계사에서 예뻐 했으며, 시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당시 100마지기에 달하는 거금인 20만원을 선포 내렸다.

이렇게 해서 그 해 부처님오신날에는 그야말로 풍성한 생일잔치가 벌어졌다. 스님은 삼십십공장에 고급 빵 3만 개를 주문했다. 이 빵으로 스님은 서울시내 111개의 양로원에 수용돼 있는 8751명의 노인 과 종사자에게 1만 개를 나눠주고, 1만 개는 조계사를 찾는 신도들에게, 나머지 1만 개는 서울역 행인들에게 나눠주었다. 봉축의 기쁨을 서울 시민과 함께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쯤에서 스님의 법문이 다시 이어진다.

“불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보시의 의미를 알아야 해. 부처님은 등 팔아먹으라고 오신 게 아니야. 부처님께 올린 떡이나 과일,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주는 게 참된 생일잔치다. 양로원에 빵이라도 보시하고, 학비 없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미꾸라지 한 그릇이라도 방생하며 보시하는 날로 기억해야 해. 도(道) 닦는 것도 나눠줄 줄 알아야 진짜 도야

“
‘유아독존’ 위대한 인간 선언
이해 못하면 ‘봉축 행사꾼’
부처님 오신뜻 잘 모르고
헛절만 하는 사람 되지마라
”

깨달은 때가 낱알 필일이다. 확실히 모르고, 분명히 모르고, 크게 몰랐기 때문에 크게, 아주 크게 깨달았음을 알아야 해.”

스님이 보기에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을 모르고 불상에 절하는 것은 전부 ‘헛절’이다. 때문에 ‘헛절 많이 하지 말고 절 한자리를 해도 부처님의 본 뜻을 알고 해라. ‘정말 네 가지 죄를 지었는데도 3천년을 존경받는 그 이유를 내게 눈곱만치라도 가르쳐 주면 내가 고마워서 절해 주겠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해 보라”는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에서 봉축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신타르타 태자가 ‘주행칠보(步行七步: 일곱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하늘 위와 아래에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이라고 말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봉축 행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생활 활용 CD

전문가용 하락리수 CD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자마자 사주 간지와 선천은 후천운을 즉시 확인하는 물론 12조건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생운에 이어 대상은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세세히 볼 수 있고, 참평결과 주역점, 궁합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품입니다. 아울러 토정선생의 토정수를 활용한 토정패(384호 또는 144호)를 얻어서 실제 년운에 대입해 봄으로써, 하락리수 년운과 비교해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6년 9월 중보.
※ 구성 : CD 1매, usb라, 프로그램 매뉴얼, 오운욱기,궁합, 육효, 인쇄 가능



전문가용 재미두수 CD

삭임일 균사차 인명자장 등 각 학설에 따른 음선기능과, 재미두수 성요에 대한 각 서적의 내용 알라한 설명기능, 대한 소한 태세 될건까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미두수의 특성상 종합적인 운세품이 설명은 없습니다. 기운과 육효의 포국보조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자세해졌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 김재운, 2006년 3월 중보.
※ 구성 : CD 1매, usb라, 프로그램 매뉴얼, 명리, 기운, 육효, 육임의 명반, 인쇄 가능



전문가용 육임 CD

삼전조식된 육임식반과 더불어 9종 10과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육임공부를 할 수 있고, 720과에 대해 총운 공명 가정 행인 투자 등 각 25개 항목으로 나누어 육임점의 가부길흉이 단답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임입문 123의 번들 CD를 보완하였습니다.

※ 가격 1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6년 6월 중보.
※ 구성 : CD 1매, usb라, 프로그램 매뉴얼, 기운 명반

하락리수와 재미두수를 함께 구입하시면 전문가용 육임 cd를 드립니다.

문의 : (02) 2249-5630 / 563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민 807-21-0290-497(윤상철)
www.daeyou.net